| | | | | | I -E-4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제목 | 국문 | 위암 수술환자의 위험요인 보정후 치료결과와 진료량의 관련성 평가 | | | |
| | 영문 | | | | |
| 저 자 및 소 속 | 국문 | 이희영<br>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| | | |
| | 영문 | *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College fo medicine, Korea university* | | | |
| 분야 | 보건관리 [의료의질] | 발표자 | 이희영 [전공의] | 발표형식 | 구연 |
| 진행상황 | 연구완료 | | | | |

1. 목적

위암은 여전히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위중한 질병이므로,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의 요구도가 높으며, 실제로 개별 병원의 자료를 통해 위암 환자의 병원별 생존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. 암 환자에 대한 진료의 결과평가(outcome assessment)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다.

2. 방법

위암환자에 대한 병원 의료서비스의 결과를 5 년 생존률의 지표로 측정하고 병원간 성적을 비교, 평가하였다. 대상병원은 위암 환자를 연간 100 례 이상 취급하는 3 차 병원 10 곳으로 하고 94 년 1 년간 해당 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. 암 등록자료 및 의료보험 자료를 통하여 대상 환자를 파악하고, 통계청의 사망원인 신고 자료에서 환자의 생존여부와 사망원인을 구하였다.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암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요인을 구한후 이 요인이 포함된 생존예측 모형을 구축하고, 이를 통하여 병원별로 중증도가 보정된 5 년 기대 생존률과 실제 생존률을 구하였다. 95 년 위암등록건수 200 건을 기준으로 진료량을 high group 과 low group 으로 나누어 진료량과 5 년생존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.

3. 결과

10 개 병원 총 727 명의 환자에서 실제 5 년 생존률은 20.9% 였고, 14.1%에서 55.9%로 큰 차이를 보였다. 진료량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실제 5 년 생존률은 high group 이 30.3% low group 이 10.1%였고, 이 차이는 Log-Rank test 에서 유의함을 보였다.($p=0.0313$)

4. 고찰

암 환자에 대한 진료의 결과평가(outcome assessment)에서 병원별 차이가 있고,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. 진료량은 이러한 진료결과(5 년생존률)에 영향을 주며, 진료량이 많은 곳의 진료결과가 더 우수하였다.